

# 순천시 '정보화 발전 우수 도시' 대통령 표창 수상

### 정보문화 확산·정보격차 해소 공적 인정 받아



순천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 32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순천시가 행정정보화는 물론 창의적인 정보문화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영광을 안게 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민들과 정보 소

외 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존' 468개소를 운영해 왔다.

또 2017년 9월에 전남 최초로 개최된 '4차 산업 및 ICT 신기술 체험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환경 변화 등 신기술을 소개하면서 가족단위 관람객 2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특히, 낙안배 이공정보화마을을 전국 선도마을로 조성해 농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최근 5년간 28여명의 소득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시 대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디지털 소통을 강화했던 점도 주목 받았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기관 내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알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고령자·장년층·초등학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기여한 결과 2018년도에도 행정경변 등 신기술을 소개하면서 가족단위 관람객 2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광군, 전국최초 농업기계 캐릭터 개발

### 특허청 상표등록권 획득



영광군은 지난해 '농업기계 캐릭터 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농업활용빈도가 높은 농업기계 3종(트랙터·콤바인·드론)에 대해 캐릭터로 이미지화하여 특허청 상표등록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현재 캐릭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로 언론매

체 외 미디어 산업, 스마트폰 앱, 웹툰, 게임, SNS 활용에 큰 비중과 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농업기계를 캐릭터로 변모시켜 4종 2D모션(동작표현)으로 이미지화했다.

군은 캐릭터 개발에 있어 농업인 이외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신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의 딱딱하고 무뎠던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깨고 농산업 발전 희망의 메시지와 긍정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농업기계 캐릭터는 K-Farm Agricultural Machinery Character(대한민국 농업기계 캐릭터)라는 타이틀과 트랙터, 바인, 드리, 로니라는 캐릭터 명칭

이 부여되었다.

캐릭터 4종은 조형물로 제작되어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관 포토존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캐릭터 개발과 상표등록은 전국 최초이며 무형재산의 자산적 가치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며 "농업발전 도모를 위해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메시지 역할도 활용하고자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군은 농촌진흥청 주관 2018년 농업기계 교육사업 평가에서 '농업기계 캐릭터 개발'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여도와 타 시군과의 차별화 된 전략 수립 및 추진이 높이 평가되어 농업기계 교육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통한 기획·합동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준수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다.

따라서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퇴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구례군, 피부질환 무료 진료 실시

구례군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지난 12일 구례군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을 예방코자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의료진이 진료부터 처방까지 무료로 진행했다.

진료 대상 질환은 습진, 무좀,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건선, 백선, 가려움증,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피부상처, 여드름 등이었다.

한센병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 말초신경계 등 상기도 침범이 감염되면 조직이 변형돼 발진, 무감각,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구례군에는 피부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 무료 진료는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고흥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성료

고흥군가족센터와 고흥교육지원청 공동주관으로 최근 팔영체육관에서 군민, 다문화가족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함께 만드는 행복, 제4회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서 결혼이민 여성들로 구성된 모듬북 공연, 국악별 가정무도회, 구인·구직 취업 및 상담, 녹색 생활실천 친환경 세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국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모범가정을 이룬 이민여성 및 가족 9명과, 모범 어린이 7명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되어 어울림행사의 의미가 더욱 컸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75명의 일반·다문화가정 학생들로 구성

된 어울림 합창단이 '고향의 봄'과 '벚꽃팝콘' 노래를 불러 참석한 군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박미량 가족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는 사회적 화합으로 한층 더 단단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들이 당당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근고흥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서로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가 수 있다"며, 다문화가족이 아닌 완전한 고흥군민으로 동화되도록 함께 동행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한윤성 기자

## 보성읍포술밭해수욕장 22일 조기개장

보성군 읍포술밭해수욕장이 오는 22일 남해안에서 제일 먼저 개장해 8월 18일까지 88일간 운영된다.

읍포술밭해수욕장은 2018년 전국5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 '전국 3대 우수 해변'에 드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현재 보성군은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시설 점검, 인력배치 등 관광객 맞이 최종 점검에 민반의 준비에 기하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읍포술밭해수욕장을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거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어 휴양, 레저, 보양, 축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는 완성형 피서지다.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4계절 노천욕이 가능한 해수욕센터, 120m 일반중 심해수를 사용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수풀장, 청정 특산물 해에서 잡아 올린

제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회천수산물위판장 등이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느 시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힐어잡기 페스티벌'이 진행되어 연인, 친구, 가족들 모두에게 인기 만점이다. 또한, 보성비봉마리나, 특급반 바다낚시공원 등이 있어 해양레저를 즐기기도 안성맞춤이다.

올해 5월부터는 카약·패들보드 등을 배우고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해 레포츠 부분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읍포술밭해수욕장은 입장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고 야영장 이용도 자유로운 만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며, "관광객의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가고 싶은 해변, 머무르고 싶은 해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규일 기자

## 광양시 어린이 성장 위한 '건강 체험교실' 운영

광양시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광영동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장 발달을 위한 '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 체험교실'은 '세살부터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건강습관이 평생 좌우하는 만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취학 전 어린이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강 체험교실'에 참여할 유치원, 어린이집 10개소를 모집하고, 어린이 466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남성이 뽕뽕이 거울 체험을 이용한 비만 예방교육 △음식 골고루 먹기 △손씻기 스티커 놀이 △음주교육 △빨대를 이용한 폐질환 환자의 호흡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식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